

“세월호 침몰 ‘외력 충돌’ 뒷받침 정황 무시됐다”

사회적참사위 종합보고서 반박

진상규명국장 등 광주서 설명회
집필과정서 여러 증거 채택 안돼
내인설 희박·핀 안정기 외력 유력
“증거 책 펴내… 국민 판단 맡길것”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당초 진상규명국에서는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외력설의 가능성을 크게 봤으나 전원위원회 등 보고서 집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채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직접 발표회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주최한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는 사참위 조사관들이 참여한 침몰원인 구조장기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종합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각종 증거를 언급하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 조타장치 결함 원인 아냐

사참위 조사팀은 내인설을 검토하기 위해 급선회로 인한 횡경사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조타수(키를 움직여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지난 18일 주최한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박병우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선박의 진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선원)가 방향을 급하게 틀어 배가 기울어버린 경우와 솔레노이드 밸브(유압조정장치)고장으로 인한 조타장치 고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조타수 A씨는 급선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도 ‘참’으로 나타났다. 또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모형 시험결과 침몰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2018년 내놓은 내인설 보고서에 따르면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손상흔을 발견, 이를 내인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사참위 조사팀은 횡경사가 발생하고 침몰 과정에서 어떤 물체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타격해 밸브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내인설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 핀 안정기 과회전 유력

사참위 조사팀은 사고 당시 7차례의 ‘뿡’ 소리 후 배가 급속도로 기울어 현상을 느끼고, 실제로 목격했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소리의 출처를 탐색했다.

세월호 선적 차량 중 7개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선체의 움직임과 소리를 분석한 결과, 인양 당시 허용각도(25도)를

넘어 회전된 왼쪽 핀 안정기의 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핀 안정기를 직접 만들어 과회전을 실험했고, 과회전을 일으키는 힘(157톤·m)이 발생하는 상황을 검토했다.

조사팀은 △선체 착저 시 암반 또는 지반 반발력 △착저 후 조류 등에 의한 선체 수평이동 시 지반 저항 △핀 안정기 절단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부력 △핀 안정기 절단 후 인양 과정에서 가해질 수 있는 외부력 등으로 원인을 지목했지만 그 어떤 실험가능한 경우에서도 과회전을 일으키는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팀은 핀 안정기 회전 변형은 사고

시점에서의 외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 사참위 외력 가능성 두고 내용

이러한 증거와 실험에도 사참위는 지난해 6월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상규명국의 조사 내용이 종합보고서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전원위원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최종 발표 직전까지 진상규명국과 전원위원회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전원위원회의 외력 가능성을 낮추라는 지시에도 진상규명국은 외력 가능성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참위 내부적으로 다툼이 벌어졌다.

박병우 전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참사보고서 집필 책임자에 선조위 내인설 보고서 집필 책임자를 선임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에 조사관 배제를 결정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며 “사참위의 임기는 끝났지만 항적 정보의 신뢰성 문제나 CCTV 저장장치 조작의혹 등 종합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이 상당하다. 임기가 끝나고 지금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책을 펴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같이 가겠습니다” 세월호 아버지가 이태원 아버지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만나 종합보고서 분석 발표회서 위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지난 18일 세월호광주시민모임이 주최한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간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연희씨의

아버지인 김상민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청춘을 펼쳐가던 연희가 10월29일 차디찬 길거리에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그날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경황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동안 강제 애도기간을 갖게 해 한마디 말도 못내뱉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참사의 진실 규명이었고,

그 규명을 반대한 자들이 바로 정권과 국가기관이었다. 9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국가는 변함없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책임자를 변호하기 바쁘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대하고 처벌과 대책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이태원 참사 가족들 또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인 정성욱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 가족

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이뤄낼 수 있다. 물론 길이 쉽지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힘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하며 “이태원은 물론 세월호 참사도 아직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저희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답했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인 정성욱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